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경 재외동포청 추</b> <b>인천 설치 확정!</b>
		배포일자	2023년 5월 23일(화) 총 3매	
담당 부서	창업벤처과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정책팀장 김미연 ☎440-3281</li> <li>• 담당자 최정연 ☎440-3282</li> </ul>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벤처·스타트업 종합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 인천 펀드 조성 확대, 창업공간 확충,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스케일업 지원 -
- 맞춤형 기술개발 등 혁신성장 지원, 정책 수립 활용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에 발맞춰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케일업(성장·확대) 토탈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현재 조성 중인 빅웨이브모펀드, 창업펀드, 성장펀드 등 인천 펀드 3개의 조성 규모를 기존 1조 원에서 1조 6천억 원으로 확대해 벤처·스타트업의 투자생태계를 강화한다.

인천 펀드는 지난해 말까지 3개 펀드를 통해 8,843억 원을 조성해 현재 4,080억 원이 374개 기업에 투자됐고, 그중 30%인 1,243억 원은 인천지역의 77개 우수기업에 투자됐다. 특히, 그동안 투자불모지였던 인천에 벤처캐피탈(VC)을 유치했고, 액셀러레이터(AC) 6곳, 틈스운영사 4곳이 증가하는 등 지역의 투자생태계도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

시는 올해 빅웨이브모펀드로 1,500억 원 이상의 신규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투자유치플랫폼 운영, 대·중견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등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 간 교류 협력을 통해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창업 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 공간도 늘린다. 상상플랫폼 내 지역콘텐츠 기반의 청년창업 육성 공간을 마련해 내년부터 육성 프로그램(창업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신포 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공간에도 2026년까지 약 500㎡ 규모의 창업지원 공간을 조성해 로컬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해외 진출역량은 있으나 자원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우선 올해 인천지역 10명의 청년 창업가를 선정해 액셀러레이터(AC)와 연계해 역량 강화 및 아시아 2개 지역으로의 진출을 돕는다. 올해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년간 총 100명 내외의 청년 창업가를 선정해 스케일업 도약을 위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매출 120억 원 이하의 제조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업종, 매출, 고용 등 현황을 분석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0월에는 인천지역 최초로 스타트업 간 대규모 교류 행사인 인천스타트업워크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포럼 및 세미나,

투자 설명회(IR) 등 참여자들 간 정보 공유·협업의 장을 마련해 인천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시는 인천지역 벤처·스타트업들의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펀드 조성 확대, 창업공간 확보 등 기반 확충은 물론, 글로벌 진출과 혁신성장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우수한 벤처·스타트업들이 인천지역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유기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 > 미래산업국 언론브리핑 자료